



기획시리즈



이상웅/향촌 조경수, 조경수생산
유통 심의위원
경기도 화성군 향남면
행정리 250
(0339) 353-0747

수목의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

1. 목적

뿌리돌림 및 단근작업은 이식력이 좋지 못한 수목의 굵은 뿌리를 끊어놓아 잔뿌리가 많이 발생한 후 이식하여 조경 후 활착력이 좋아지도록 하는 준비작업이다.

많은 경비가 들고 그 해에 수목이 자라지 못하여 재배자로서는 단점이 아닐 수 없다.

뿌리돌림을 해 놓은 수목은 구입처에서 몇 할의 가격을 더 주고 구입하여 준다면 좋겠으나 무조건 규격만 따져 값싼 가격에 구입하려 했던 것이 현재까지의 통례이다.

이에 현실화가 되어 하자가 나지 않는 좋은 상품의 조경수가 생산되는 조건이 되도록 지향해야 하겠다.

여름에 식재공사를 하려면 분

뜨기를 하여 가식은 못한다 하여도 단근작업 정도는 해 두어야 한다.

수목의 크기와 세력의 정도 및 이식하는 계절에 따라 다르나 이식 후 활착력이 좋지 못한 수종은 소나무, 층층나무, 단풍나무, 산딸나무, 감나무, 참나무류, 때죽나무, 자귀나무, 잣나무 등을 들 수 있다.

뿌리돌림도 단근작업이므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로 한다.

2. 실시 시기

뿌리돌림의 시기는 가급적 혹은 한기, 혹서기 및 가뭄이 계속되는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연중 언제나 가능하나 봄 잎이 피기 전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.

3. 효과

어린묘목에서부터 높고 큰나무(노거수)에 이르기까지 수목의 휴면기인 가을에 실시한 후 다음에 봄 잎이 피기 전에 이식하면 아무 효과도 없겠으나 수목의 활동시

기에 실시하면 그 기간이 짧다 하여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.

단근작업 후 새 뿌리가 발생할 때에 이식하여도 효과가 크며 1년 정도 경과한 후라면 더욱 크다 하겠다.

묘목을 단근작업하여두면 이식 후 고사율이 매우 낮아지며, 공사에 쓰는 규격 전의 수목에서는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이 그다지 경제성이 없다고 본다.

규격이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근경 10cm 이하의 수목은 뿌리돌림 후 1년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. 높고 큰 나무는 뿌리돌림한 후 약 2년 정도 경과하여 잔뿌리가 충분히 발생하였을 때 그 효과가 최고로 크다고 할 수 있다.

4. 실시 방법

묘목의 경우에는 삽으로 한번 씩만 질러주어 뿌리를 끊어 놓은 후에 들뜬 흙을 진압하여 주면 된다.

근경 4~5cm 정도 크기의 수목

은 1주당 2~3회 정도로 삼지르기를 실시하고 그 이상의 수목은 땅을 파내가며 굵은 뿌리를 끊어 놓는다.

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너무 철저히 굵은 뿌리를 끊어 놓으면 비바람에 의해 나무가 쓰러지므로 지주목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세 방향 정도로 굵은 뿌리를 남겨두고 단근작업을 실시한다. 따라서 철저한 단근작업을 하고 싶으면 남겨둔 굵은 뿌리는 환상박피를 하여 지탱하는 기능만 하도록하고 영양과 물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.

앞에 기술한 바 있으나 워낙 큰 늙은 나무를 뿌리돌림할 때에는 한 해에 전부 실시하지 말고 2회 혹은 경우에 따라 3~4회 정도 연

차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. 실시하는 요령은 한쪽을 실시한 후 반대쪽은 다음 해에 실시하여 수목에 너무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한다.

소나무의 경우 공사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근경 15~20cm의 규격을 뿌리돌림하기 위하여 흙파내기를 하였다면 그 때에 고무밴드와 반생(가열한 철사)으로 분을 묶고 흙덮기를 실시함이 다시 캐낼 때에 분감기하는 것보다 경비가 훨씬 절감된다.

늙고 큰 나무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흙 넣기 전에 생명정 혹은 생명토로 끊긴 부위를 발근처리하고 거름넣기를 한 후 흙넣기를 실시한다.

거름은 완숙된 퇴비가 가장 좋으며 여의치 않은 경우 미숙퇴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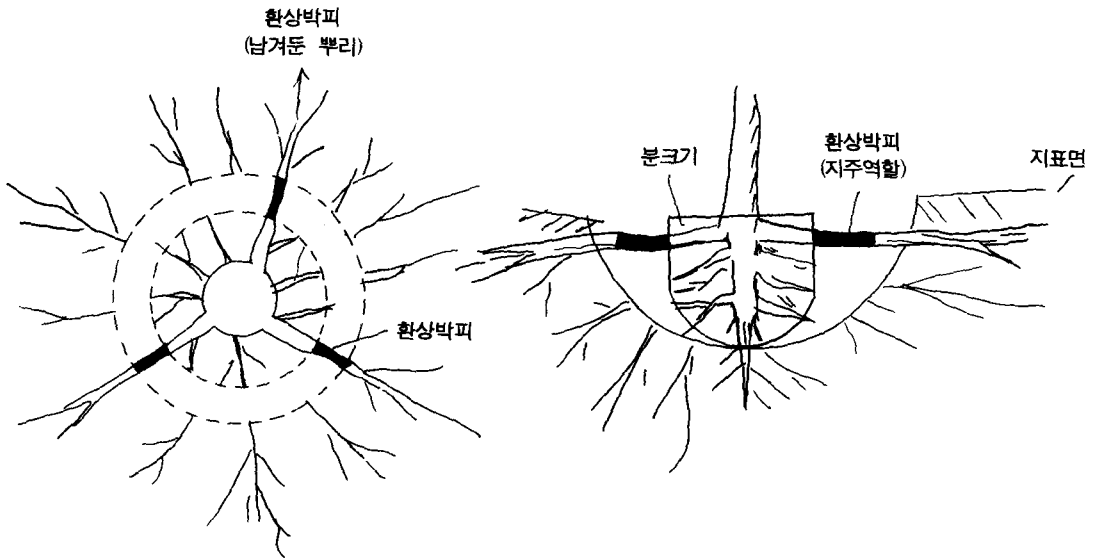
혹은 동식물의 분뇨, 화학비료 순으로 시비한다.

미숙된 퇴비 혹은 화학비료를 넣을 경우에는 분해과정에서 가스의 피해 혹은 비료 자체의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흙으로 뿌리 절단면을 약간 덮은 후에 거름을 넣는다.

뿌리돌림할 때 거름을 넣어주면 나무의 세력이 약하여 고사하는 일이 없고 또한 수세가 신속히 회복되어 잔뿌리도 왕성하게 발생된다.

거름넣기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주위에서 가장 비옥한 지표면의 흙부터 먼저 넣어 준다.

흙은 약간씩이라도 진압하여 가며 넣고 마지막으로 때운 흙을 잘 밟아주어 뿌리돌림 작업을 마친다.



뿌리돌림 모식도